

언해의서 비교고찰을 통한 한의학용어의 번역표준안

- 『언해두창집요』, 『언해구급방』, 『언해태산집요』를 중심으로

구현희, 김현구, 이정현, 오준호, 권오민

한국한의학연구원 문헌연구그룹

Standard Translation of Terms of Korean Medicine through Consideration of Chinese-Korean Collated Medical Classics

- With focus on 『Eonhaegugeupbang』, 『Eonhaetaesanjipyo』 and 『Eonhaetaesanjipyo』 -

Ku Hyunhee, Kim Hyunkoo, Lee JungHyun, Oh Junho, Kwon Ohmin

Medical History and Literature Research Group,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This article set out to develop an old Chinese – modern Korean collated terminology by analyzing and paralleling Chinese–Korean translational terms relevant to Korean medicine at a minimum meaning unit from 『Eonhaegugeupbang』, 『Eonhaetaesanjipyo』 and 『Eonhaetaesanjipyo』. Those are composed of original Chinese texts and their subsequent corresponding Korean translations. It tries to make a list of translational standards of Korean medicine terms by classifying the cases of translational ambiguity in terms of disease, body position, thumbnail–pressing acupuncture method, and disease–curing method.

The above–mentioned ancient books are medical classics written by Huh Jun, the representative medical physician, and published by the Joseon government. Thus, they are appropriate enough as historically legitimate medical documents, from which are drawn out words and terms to form an old Chinese – modern Korean collation dictionary.

This collation glossary will contribute to the increased relevance of data ming, or information retrieval. in a database system and information search engine of massive Korean medical records, by means of providing a novel way to obtaining synchronized results between the original writings of old Chinese and the secondary translated ones of modern Korean. The glossary will promote the collective but consistent translation of numerous old archives of Korean medicine and in other related fields as well.

Keyword : Eonhaegugeupbang, Eonhaetaesanjipyo, Eonhaetaesanjipyo, Korean medicine, medical classic, Standard terminology, Korean translation

I. 서론

현재 한의학계에 우수하고 다양한 의학서적에 대한

번역이 요구되고, 과거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서적들이 번역이 되었지만 일반적인 고전번역과는 달리 치료를 대상으로 하는 한의학 용어의 특수한 성격으로 인하여 같은 용어를 전혀 다르게 번역하거나, 비슷하게 번역이 되었더라도 의미가 달라지는 경향이 있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인문학 위주의 고전번역 전문가가 한의학 지식을 갖추지 못한 채 번역을 진행

접수 ▶ 2012년 10월 31일 수정 ▶ 2012년 11월 27일 채택 ▶ 2012년 11월 29일
교신저자 권오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72 한국한의학연구원
Tel 042-868-9606 Fax 042-863-9463 E-mail fivemink@kiom.re.kr

하거나, 반대로 한의학 지식전문가가 익숙치 않은 한문 번역을 하면서 생기는 불가피한 오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는 고전의학서적을 번역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었으나 세계의료시장에 한의학의 경쟁력 신장을 꾀하려는 지금의 요구를 해소해주기에는 역부족이다. 또한 각국에서 자국의 전통의학에 시각을 돌려 방대한 DB를 구축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검색의 용이성과 정보의 연산이 가능한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검색의 질과 양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의학 용어의 번역표준화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해 나아가기 위한 여러 단계 중 기초단계이며 지금부터라도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번역표준안의 초석을 다져보고자 조선시대 허준이 동참하여 간행했던 관찬언해의서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해보도록 하겠다.

언해의서들이 편찬되던 당시 임진왜란으로 인해 백성들은 기근과 전염병이 난무하여 사망자가 속출하였다. 1602년에는 함경도, 전라도에 여역 및 대소역, 대두운 등이 크게 발생하여 1604년까지 계속되었다. 더욱이 선조36년(1604)에는 왕세자 2남과 왕녀가 두역으로 갑자기 죽게 되고 선조41년(1608)에는 왕마저병환으로 눕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들이 당시 의관이나 백성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의서의 간행의 필요성을 증대시켰고, 당시 허준은 『諺解痘瘡集要』·『諺解救急方』·『諺解胎產集要』를 집필하고 있었다.¹⁾

『諺解痘瘡集要』는 許浚이 宣祖34년(1601) 왕명으로 편찬한 것을, 宣祖41년(1608) 內醫院에서 開刊하였다. 세조때 內醫 任元濬이 撰한 『瘡疹集』을 改修·新修·諺解한 두창에 관한 전문의서로 상하권 2책으로 되었다. 현재 서울대 규장각과 한독의약박물관에 소장중이다. 『諺解救急方』은 宣祖40년(1607) 內醫院에서 開刊되었다. 世宗때 撰者·刊記不明인 『救急方』을 改編·諺解한 구급서로 상하권 2책으로 되어있다. 현재 일본 逢左文庫와 한독의약박물관에 소장중이다. 『諺解胎產集要』은 宣祖41년(1608) 內醫院에서 刊行되었다. 세종때 盧重禮가 撰한 『胎產要錄』을 改編·補完한 胎產·胎兒保護에 대한 産書로 1권1책으로 되어있다. 현재 서울대 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 한독의약박물관

에 소장중이며 보물 제 1088호이다.²⁾

한글창제 이후부터 개화기 이전에는 번역을 보통 언해라고 불렀는데, 중앙에서만 간행되던 언해서가 16세기에 들어서는 지방에서도 간행되기 시작하였고, 17세기 이후부터는 교정청의 경서언해의 보급으로 언해서가 보편화되었다. 이러한 언해의 확대는 한글을 보급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문자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번역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문화의 향상과 학문의 발달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당시에는 유교경전, 불교서, 교화서, 기술서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언해가 이루어졌다.³⁾ 언해의서가 차례로 간행된 것도 당시의 이런 분위기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의서의 번역을 통해 당시 일생생활에 필요하면서도 실제로 서민들이 보기 어려운 의학지식을 보급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II. 연구사 및 연구방법

지금까지 언해의서에 대한 연구는 국어학·서지학·번역학·의사학적 시각으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1986년 채인숙의 「17세기 醫書諺解의 국어학적 고찰」을 시작으로 2012년에 이르기까지 『언해구급방』, 『구급방언해』, 언해본『침구경험방』, 『언해태산집요』, 『언해두창집요』, 『구급간지방언해』, 『언해남약증치방』 그리고 언해의서 전반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가 대략 28건 가량 진행되었다. 그 중 21건은 국어학 중에서도 어휘에 초점을 맞춘 연구였으며 표기법, 희귀어휘, 한자음, 음운현상을 위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중 김남경은 2003년부터 2009년에 걸쳐 구급방류 의서의 증세, 처방, 치료 구문의 유형을 연구하고 언해를 비교하여 구급방류 언해의서의 국어학적 가치를 높였다. 언해의서의 서지학적 연구는 김중권을 위주로 진행되었는데, 『언해태산집요』, 『언해구급방』, 『언해두창집요』에 대한 서지학적 연구를 1993년과 1994년에 걸쳐 마치면서 세 언해의서 연구의 초석을 다졌다. 이후

1) 정은아. 「許浚의 『諺解胎產集要』에 對한 研究」. 경희대학교학원. 2003;11.

2) 정은아. 「許浚의 『諺解胎產集要』에 對한 研究」. 경희대학교학원. 2003;10.

3) 안경희. 「諺解의 史的 考察」. 『민족문화』. 1985;11:7-26.

강순애와 이현숙에 의해 『언해 벽온신방』과 『언해남 약증치방』에 의해 언해의서 연구의 범위가 넓어졌다.

언해의서에 대한 의사학적 고찰은 2003년 김민수⁴⁾의 『언해두창집요』 연구를 시작으로 정순덕⁵⁾과 정은아⁶⁾에 의해 『언해구급방』과 『언해태산집요』의 의사학적 연구도 차례로 진행되었다. 2009년 최미현⁷⁾이 『언해태산집요』와 『동의보감』의 원문을 비교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언해의서의 번역에 초점을 맞춰 연구한 논문은 2004년 강유리⁸⁾에 의해서 진행되었는데 구급간이방 언해를 동의보감 탕액편과 비교하여 약재명의 변천사를 살폈다. 2008년 육신영⁹⁾은 언해태산집요를 번역하고 국어학적·의사학적 의의를 밝혔고, 2011년 최미현¹⁰⁾은 언해의서류의 역주서들을 대상을 그 체재 및 역주방법을 검토하고 역주서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였다. 석주연¹¹⁾은 조선시대 언해의서에 나타난 분류사의 종류와 기능을 살폈는데 약재를 세는 도량형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어 유의할만 하다.

본고에서 논의하고자하는 바는 언해의서를 의사학적 입장에서 본 번역 표준이다. 앞서 서론에서 언급했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언해의서 중 『諺解痘瘡集要』·『諺解救急方』·『諺解胎産集要』에 등장하는 용어들을 한의학 용어로 볼 수 있는 최소의미단위로 나누어 각각의 원문과 언해를 발췌하고, 중복되는 용어들이 어떻게 언해로 풀어서 적용되어 있는지를 비교하였으며, 그 중 번역이 애매하거나 여러 가지로 번역이 도출되는 경우들을 모아서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도량형(분류사)과 약재명에 대해서는 이미 소

정의 연구결과가 있으므로 제외하고 그 외 병증·신체 부위·조법·치법으로 분류하여 규정하기 어려운 해석에 대해 고찰해보고, 한의학 번역 표준에 대한 단초를 마련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언해의서가 한자에 익숙하지 않은 의관이나 백성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의서를 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병증, 증상 등 설명에 대해서도 보다 자세하고, 혼동하기 쉬운 대상을 언해로 쉽게 풀어서 간행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언해의서들 중 위 세가지 의서들을 기준언해서로 선택한 것은 이 언해의서들이 국가 차원에서 간행한 관찬의서였으며, 『東醫寶鑑』을 편찬한 허준의 저작물이라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더불어 한의학 용어 번역의 현대화 측면을 고려하여 언해로 된 번역이 현대의학적 입장에서 어색한 경우에는 동의보감출판사에서 간행한 번역서 『동의보감』¹²⁾과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간행한 번역서 『언해두창집요』¹³⁾·『언해구급방』¹⁴⁾·『언해태산집요』¹⁵⁾을 참조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비록 언해에 대한 많은 정보가 『17세기 국어사전』¹⁶⁾이나 『교학고어사전』¹⁷⁾, 『우리말큰사전』V.4(고어편)¹⁸⁾에 수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국어학을 하는 입장에서 보는 용어와 한의학적인 입장에서 보는 한의학용어의 적절한 번역대역어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한의학 표준화를 위한 용어 표준화를 위해서나 한의학정보 검색의 일치도를 높이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Ⅲ. 본론

1. 병증용어의 번역 표준안

지금까지 발견된 字釋방식으로는 註釋式과 釋音式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주석식은 훈민정음이후의 정음문헌과 각종 諺解書에 나오는 割注나 注釋文들에서

4) 김민수. 「『언해두창집요』의 의사학적 고찰」. 경희대 대학원. 2003.
 5) 정순덕. 「許浚의 『諺解救急方』에 관한 研究」. 『한국의사학회』. 2003;16(2).
 6) 정은아. 「許浚의 『諺解胎産集要』에 對한 研究」. 경희대대학원. 2003.
 7) 최미현. 「『諺解胎産集要』와 『東醫寶鑑』의 원문 대조 연구(1)」. 『우리말연구』. 2009;25.
 8) 강유리. 「『救急簡易方諺解』와 『東醫寶鑑』 湯液篇의 약재명에 대한 비교」. 공주대 대학원. 2004.
 9) 육신영. 「『언해태산집요』에 대한 번역 연구」. 동국대 대학원. 2008.
 10) 최미현. 「언해 의서류의 역주 방법 연구」. 『국어사연구』. 2011;12.
 11) 석주연. 「조선시대 의학서 언해류에 나타난 분류사의 종류와 기능」. 『우리말 글』. 2011;51.

12) 윤석희, 김형준 역. 『동의보감』. 동의보감출판사. 2006.
 13) 안상우 외 역. 『언해두창집요』. 한국한의학연구원. 2011.
 14) 안상우 외 역. 『언해구급방』. 한국한의학연구원. 2011.
 15) 안상우 외 역. 『언해태산집요』. 한국한의학연구원. 2011.
 16) 홍윤표 외 간. 『17세기국어사전』. 태학사. 1995.
 17) 남광우. 『교학고어사전』. (주)교학사. 1997.
 18) 한글학회 편. 『우리말큰사전』V.4(고어편). 어문각. 1992.

의 한자에 대한 풀이 방식으로 된 것들이며, 釋音式은 한자 初學書들에서 사용된 것으로 한자의 字釋과 字音을 한 묶음으로 달아 놓은 방식으로 분류한 것이다.¹⁹⁾ 『언해두창집요(이하 언두)』, 『언해구급방(이하 언구)』, 『언해태산집요(이하 언태)』는 백성들의 실제 활용을 염두하여 간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도록 주석식의 언해로 되어 있다.

1) 厥

『東醫寶鑑』을 살펴보면 厥이라는 증세에 대한 언급을 자주 찾아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번역은 주로 釋音式으로 쓰여 ‘귓역하다, 귓증, 귓질’로 풀이되어 있거나 ‘힘이 빠지다, 기절하다’ 등으로 풀이한다. 또 병증으로 쓰이는 氣厥, 痰厥, 尸厥, 食厥 등의 경우에도 별다른 풀이 없이 ‘기귓, 담귓, 시귓, 식귓’로 풀이하고 있으며, 氣厥, 痰厥, 尸厥, 食厥의 자세한 병증을 설명하는 문장에서도 氣厥은 ‘기혈이 허해 邪氣가 거슬러 오르는 것’, 痰厥은 ‘속이 허한 상태에서 寒을 받아 痰氣가 막힌 것’, 尸厥은 ‘맥이 있고 기가 없는 것’, 食厥은 ‘식귓이 되면 사람이 갑자기 어지러워 쓰러지고 입을 악물고 말하지 못하며,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사지를 거동하지 못하는 것’ 등으로 풀이하고 있어 일반인이 명확한 의미를 알기 쉽지 않다. 『언구』에는 氣厥, 痰厥, 尸厥, 食厥에 언해제목 달려있고, 치료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다.

원문	출처	편명	언해	의미
氣厥	언구	기귓	기운 치쳐 인스 모로는 병	기귓병은 교만하고 부귀 스투의게 만히 나느니 아무일이나 것질허 분노혼 기운을 발설치 못하여 우호로 치치면 문득 업더려 인스를 모르고 아피 서며 손발을 주리히워 중풍단증갓느니
痰厥	언구	담귓	담이 막혀 인스 모로는 병	과날이 담귓증 여더 인스를 모르고 목에서 톱혈 소러 갓겨든
尸厥	언구	시귓	기운이 치쳐 기절하여 얼굴이 죽검 갓튼 증	몸에 맥이 다 움직이되 인스를 몰나 얼굴이 죽엄 갓툼으로 일흠을 시귓이라 하느니,
食厥	언구	식귓	음식이 미쳐 인스 모로는 병	음식 너무 먹그물 인하여 보치오를 비변하여 슈상헌 과그른 증이 되어 썩르기 중풍 갓하여 입도 말도 못하고 눈도 스투를 보지 못허거든,

여기에서 도출해 낼 수 있는 결과는 厥證이 ‘인스 모

로는 병’이라는 점이며 즉, ‘厥=인사불성이 되는 증세’로 번역어를 대입할 수 있다. 그러므로 氣厥은 ‘기귓(기운이 치우쳐 인사불성이 되는 병)’으로, 痰厥은 ‘담귓(담이 막혀 인사불성이 되는 병)’으로, 尸厥은 ‘시귓(기절하여 시체처럼 인사불성이 되는 병)’으로, 食厥은 ‘식귓(음식으로 막혀 인사불성이 된 병)’으로 번역어를 정립하는 것이 적당하다.

2) 癩, 疫癘, 痘, 瘡, 疹

癩, 痘, 瘡, 疹, 疔, 疫, 癰, 疽, 癩, 癩 등은 피부질환 용어에 해당된다. 『原色 皮膚科學』²⁰⁾에서는 이 한의학용어들에 대하여 각 증상별로 피부 및 외과질환의 命名과 分類를 해놓았는데 癰, 疔, 癩, 疽는 瘡瘍의 분류에 속하고 瘡, 癩(斑), 疹, 痘는 피부병의 분류에 속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또한 각각의 증상이나 부위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놓고는 있으나 두 용어가 결합된 형태로 쓰이기도 하고, 한 용어의 증상설명 내에 다른 용어가 섞여 있기도 하다. 번역서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각 용어들이 결합된 형태로 쓰이거나, 따로 쓰인 경우 같은 뜻 혹은 다른 뜻으로 쓰여있어, 사실상 혼재되어 사용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① 癩, 疫癘

癩은 『언구』에 두 번 등장하는데 「大頭癩」편에 나온다. 여기에서 大頭癩은 제목옆에 ‘머리과 낫치 크기 붓는 병이라’고 기술되어 있으며, ‘天行癩役’이라고도 하는데, 즉 유행성 온역을 의미한다. 증상에 대해서는 ‘머리과 낫치 부어 크기 말 곳고 혹 터져 고름 나고, 또 남의게 전염호모로 천행온역이라 이르느니’라고 기술되어 있다. 疫癘는 제목옆에 ‘시귀열병이라’ 기술되어 있는데, 즉 유행성 열병을 의미한다.

② 痘, 瘡, 疹

痘와 瘡는 한의학서에 매우 빈번하게 등장하는 용어들 중 하나이다. 각각의 한 글자가 병증으로 쓰이기도 하고 다른자와 결합하여 새로운 증상으로 쓰이기도 하며, 痘와 瘡가 합쳐져서 쓰이기도 한다. 『原色 皮膚科學』²¹⁾에서는 痘를 ‘피부에 滲液 혹은 漿液性 물질을

19) 신경철. 『국어자석연구』. 태학사. 1993;15.

20) 노석선. 『原色 皮膚科學』. (주)아이비씨기획. 2006.

함유한 小水疱가 용기된 일종의 수포로 痘와 비슷하여 예전에는 痘瘡이라 했으며 水痘, 牛痘등에서 나타난다'고 하였다. 痘는 제목과도 일치되듯 『언두』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 痘가 쓰인 용례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원문	출처	편명	언해
痘	언두	해독면두방	형역
痘壞	언두	실혈	형역이 흐여디고
痘痰	언두	담천	형역의 담
痘癰	언두	번길홍증	형역의 종괴
痘子	언두	요복통	형역
痘疹	언두	두창원위	형역/두창과 단창/두창/형역 ㅼ리
痘瘡	언두	한진	형역
痘形	언두	도염	형역 얼굴
飛痘	언두	출두삼일	느는 형역
賊痘	언두	출두삼일	도죽 형역

용례를 살펴보면 痘의 경우는 모든 경우 '형역'으로만 풀이되어 있고, 痘와 瘡이 결합된 용어에도 많은 경우 '형역'으로 번역하고 있으며 痘疹이나 痘子에도 '형역'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시말해 痘와 결합된 용어는 疹, 瘡와 함께 한 단어로 쓰인 경우라도 '형역' 즉, '마'로 번역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瘡의 경우를 살펴보자.

원문	출처	편명	언해	현대어
百歲瘡	언두	해독면두방	백세창	백세창
聖瘡	언두	두창통치	어딘 형역	어진 마마
疔瘡	언구	옹저	정종	정창(疔瘡)
瘡疹	언두	두반진형색	창진	창진
瘡痂	언두	번갈	더데	딱지
瘡口	언구	과상풍	헌굴	혈은 곳
瘡瘍	언구	과상풍	헌 ㅼ	혈은 곳
瘡瘍	언두	두창원위	허는 병	허는 증상
疔瘡	언구	옹저	정종	정창
痘瘡	언두	한진	형역	마마
大風瘡	언구	대풍창	혈른는 병이라	허는 병이다
天疱瘡	언구	천포창	당옴이라	천포창이다
陰蝕瘡	언구	음식창	산아회 음경에 머굴 것 부터는 병이라	남자의 음경에 생긴 창병이다.
癩瘡	언두	출두삼일	썸도약기	땀띠

21) 노석선. 위의 책:126.

『原色 皮膚科學』²²⁾에서 瘡에 대해서는 '피부나 두피의 표면에 형성되는 丘疹, 疱疹, 水疱, 膿疱 등 뿐만 아니라 潰破된 후에 나타나는 제반 증상에 포괄적인 증후로 쓰인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너무 많은 증상들을 포괄하고 있어 단일한 증상에만 번역어를 국한시키는 것은 어려울 듯하나 언해에서 쓰인 용례를 살펴보면 번역어를 '마마'와 '헐다'의 뜻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마마로 쓰이는 경우에는 각각 앞 뒤에 疔, 疹, 痂, 瘍, 癩 등과 결합되면서 疔, 疹, 痂, 瘍, 癩로 인해 생기는 부스럼으로서의 뜻을 지니게 된다. '헐다'의 뜻으로 해석되는 경우인 破傷風, 天疱瘡, 陰蝕瘡를 살펴보면 '헐다'의 의미로 쓰이는 瘡의 의미가 단순히 상처를 입어 헐었다기 보다는 썩어 문드러지듯 살이 헐어 없어지는 무서운 증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原色 皮膚科學』²³⁾에서 疹은 '비교적 작게 용기된 돌출물로 丘疹의 형태를 띠며 發疹이라고 한다. 가려움증이 일어나고 疥子, 瘰瘡, 濕瘡 등에 주로 나타난다'고 기술하고 있다.

원문	출처	편명	언해	현대어
麻疹	언두	출두삼일	ㅼ리	홍역
疹	언두	두반진형색	진	부스럼
疹	언두	변경중순역	ㅼ리	홍역
痘疹	언두	두창원위	형역	마마
痘癩疹形色	언두	두반진형색	형역과 독역과 ㅼ리의 얼굴과 빈치라	마마, 독역과 홍역의 형태와 증상이다

언해의 경우를 살펴보면 疹은 '부스럼'이나 '홍역'의 두가지로 번역어를 설정할 수 있으며 疹이 홍역으로 쓰인 경우는 痘와 함께 쓰인 경우이므로 배제하기로 하겠다. 재미있는 것은 『언두』의 「痘癩疹形色」이라는 편명인데 痘와 癩과 疹 즉, 마마와 독역과 홍역의 형태와 증상을 나누어 설명한 부분이다. 여기에서는 농포가 희고 큰 것은 痘로, 빛이 붉고 작은 것은 癩으로, 적황색이면서 작은 것은 疹으로 설명하고 있어 약간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

22) 노석선. 위의 책:121.

23) 노석선. 위의 책:124.

3) 煩, 悶, 燥(躁)

의서를 번역하면서 중요한 증상은 아니지만 모두 답답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듯하나 정확한 의미를 규정하기 애매한 용어가 煩渴, 煩悶, 煩躁 등이다. 『언두』나 『언구』, 『언태』에서는 煩을 어떻게 언해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원문	출처	편명	언해	현대어
煩渴	언두	출두삼일	번갈	번갈
煩渴	언두	번갈	번열하여 갈은 증이라	번열하여 목이 마른 증상이다
煩渴	언구	제약독	번열하고 갈흐느니	번열이 나고 목이 마르니
煩痛	언두	반란	죄여 아픈거든 좃물러 아픈거나	(가슴이) 죄이듯이 아프거나 좃물러 아프거나
心烦	언두	혹함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心烦	언태	자번	마음이 번열하여	마음이 타듯 답답하여

언해의 용례를 살펴보면 煩은 ‘답답하다’ 또는 ‘번열하다’로 해석해 볼 수 있을 듯하다. 번열하다는 것은 한의학에서 열이 나서 가슴이 답답하고 괴로운 증상으로 볼 수 있는데 ‘가슴이 타듯 답답하다’로 종합해 볼 수 있겠다. 또 『언두』에서는 煩渴의 증상을 언해로 길게 풀어 놓았는데, ‘탕하고 갈흐며 즈치고 갈흐며 놀라고 갈흐며 너털고 갈흐며 니글고 갈흐니 쏘흔 열로 그러리’라고 하였다. 즉, 배가 불러오고 목마르며, 설사하고 목마르며, 놀라고 목마르며, 덜덜 떨며 목마르고, 이 같고 목마르면 또한 대부분 열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므로 煩渴은 화열이 가슴에 들은 듯 답답한 증세를 말하는 것으로 번역은 ‘가슴이 타듯 답답하고 목이 마른 증상’으로 표준을 삼는 것이 적당할 듯하다. 悶과 燥(躁)의 경우도 살펴보기로 하겠다.

용례를 살펴보면 悶은 ‘답답하다’로 종합해 볼 수 있으며, 煩에서 말하는 ‘가슴이 타듯 답답한 증상’과는 차이가 있다. 煩悶의 경우는 모두 ‘답답하다’고 언해가 되어 있고 煩燥(躁)의 경우는 ‘번열하여 답답하다’고 쓰인 경우도 보인다. 그러므로 煩悶은 ‘답답하다’로, 煩燥(躁)는 ‘가슴이 타듯 답답하다’로 번역하는 것이 좋겠다.

원문	출처	편명	언해	현대어
心悶	언구	제약독	가삼이 답답흐느니	가슴이 답답하느니
喘悶	언두	번갈	천만하고	기침이 나고 답답하고
悶亂	언두	번길홍증	답답하야	답답하여
氣悶	언구	타압상	기운이 답답하야	기운이 답답하여
煩燥	언두	번길홍증	답답흐니오	답답하니
煩燥	언구	제약독	답답하여	답답하여
煩躁	언두	발열삼일	답답하머	답답하며
煩躁	언태	발열	번열하여 답답하고	가슴이 타듯 답답하고
煩燥悶	언구	제약독	번열하여 답답하고	가슴이 타듯 답답하고
煩悶	언구	대번불통	답답하거든	답답하거든
煩悶	언구	음식독	답답하여	답답하여
煩悶	언두	발열삼일	답답하여	답답하여
煩悶	언두	발열삼일	답답하여 흐머	답답해 하며
煩憊	언구	제수상	답답하야	답답하여
煩憊	언두	발열삼일	답답하여 흐머	답답해 하며

4) 기타 병증

위의 경우처럼 번역이 딱 떨어지는 경우는 아니지만, 번역을 하다보면 종종 증상 자체에서 헛갈리는 경우가 있다. 客忤, 鬼魘, 疝痛, 奔豚, 邪祟의 경우인데, 귀신을 보았다느니 하는 증상이 함께 기록되어 있어 더욱 애매하다. 언해에서 이 병증들에 대한 대략적인 증상을 설명하고 있어 번역에 도움이 될 만하다.

원문	출처	편명	언해	의미
客忤	언구	중악	모진 췌거스게 마주 괴절한 병	중악을 한 일흠을 깬외라 흐느니, 어두운뒤 후 뒷간에 가거나 후 들에나 후 무덤에나 후 뽕집이나 가노다가 홀연이 눈에 췌거슬 보고 입이며 코히 모진 괴운을 마타 문득 짜의 굴어져 스지 초고 낫지 검무르고 두 손을 췌며 쥐고 코와 입에 피 나면 슈유의 구치 못흐느니라.
鬼魘	언구	귀염	자다가 2외 놀너 괴절한 병	스름이 관역에 가거나 오리 스름 업슨 뽕 방에 들러자다가 췌거스게 놀인빈 되면 그스름이 훌근훌근 소리 흐느니
疝痛 奔豚	언구	산통	산증이 비기습으로서 가슴으로 차왔는 이	비기습 알코 디소변 못 누면 일흠을 산증(疝痛)이니 냉기로 어든 병이라. 산증이 비기습으로서 가슴으로 차왔는 이를 일흠을 분돈(奔豚)이라 흐느니,
邪祟	언구	사수	췌거스 빌피 들인 병	스름이 미쳐 슬허 울고 읍췌기느니는 스기 빌피 드러시니, 후 노력하며 울며 읍췌기며 우으며 후 시궁기 안즈 더러운 거슬 먹으며 후 옷 버셔 얼골을 니고 밤낮으로 헤지르며 후 바람을 향하여 엎되어 스름 보고져 아니흐느니

이 병증들에 대한 언해서와 현대적인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客忤는 ‘헛것을 보고 기절한 증상’으로, 鬼壓은 ‘자다가 가위 눌려 기절한 증상’으로, 疝痛은 ‘아랫배가 아프고 대소변을 못누는 증상’으로, 奔豚은 ‘산증으로 인한 통증이 아랫배에서 가슴으로 치받는 증상’으로, 邪祟는 ‘귀신에 들린 듯 미친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2. 신체 용어의 번역 표준안

신체용어는 대부분 어느정도의 번역표준이 완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번역을 하다보면 정확한 부위를 알기 어려운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으므로 본고에서 다뤄보고자 한다.

원문	출처	편명	언해	현대어
足脛	언두	변허실증	발목	발목
臂脛	언구	자액사	팔과 다리	팔다리
脛	언구	제혈론	정강이	정강이
牙	언두	변길홍증	니피 음	잇몸
牙	언구	파상풍	니뎨	잇몸
牙	언태	부초생소아구급	니뎨음	잇몸
牙關	언구	후폐	아관	입
牙唇	언구	중풍	니뎨음	잇몸
牙車	언구	실흡탈함	아괴	입아귀
腎	언두	두반진형색	신장	신장
腎	언태	부초생소아구급	음낭	음낭
外腎	언구	산통	실낭	음낭
外腎	언태	부초생소아구급	외신	음낭
陰牽	언구	곽관	수신	음낭
陰囊	언두	수업삼일	음낭	음낭

『東醫寶鑑』과 함께 여러 한의서에서 足脛이 등장하는 경우 다양한 의미로 번역된다. ‘다리’, ‘정강이’, ‘발과 정강이’로 번역이 되는데, 주로 經이 足과 함께 쓰이는 경우에는 ‘정강이’로 풀이해왔던 듯하다. 그러나 足脛은 『언두』에 두 번 등장하는데, 모두 ‘발목’으로 언해를 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脛이 臂과 같이 쓰인 경우에는 결합어로서 팔다리라는 의미로 쓰였다. 언해에서 ‘정강이’로 쓰이는 용어는 『언구』에서 脛가 쓰였으며, 따로 脛이 정강이로 쓰인 경우는 찾아볼 수 없었다. 牙의 경우는 보통 ‘어금니’나 ‘치아’로 번역을 하곤 하는데, 『언구』, 『언두』, 『언태』에서 모두 ‘잇몸’으로 언해한 경우를 찾아볼 수 있어 흥미롭다. 牙車는 『東醫

寶鑑』에서 한번 등장하는데, ‘헛거혈’로 번역하고 있다. 언해의서에서 牙車는 비슷한 음운을 가차해서 ‘아귀’의 뜻으로 쓰인 듯 하다. ‘음낭’으로 번역할 수 있는 용어로는 腎, 外腎, 陰牽, 陰囊가 있고 그 중 腎은 쓰임에 따라 ‘신장’과 ‘음낭’으로 번역할 수 있다.

3. 조법 용어의 번역 표준안

1) 滾, 沸, 湯, 煎, 煮, 熬

滾, 沸, 湯, 煎, 煮, 熬는 『동의보감』에도 자주 등장하는 조법 용어이다. 주로 물이나 약재를 달이는 의미로 쓰이는데, 번역 사례를 살펴보면 크게 차이 없이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滾은 ‘끓이다’, ‘흐르다’, ‘펄펄 끓이다’로 혼용되어 쓰이고, 沸은 ‘끓이다’, ‘끓어오르다’로 쓰인다. 湯은 방제명과 함께 쓰이거나 처방을 복용하기 위한 물을 달이는 경우에 많이 쓰인다. 그러므로 ‘달인다’, ‘~탕’으로 주로 번역된다. 煎도 ‘달인다’의 의미로 많이 쓰이고, 煮는 ‘달이다’나 ‘삶다’의 의미로 많이 쓰인다. 熬는 ‘달이다’나 ‘졸이다’로 많이 쓰이는데, ‘볶다’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원문	출처	편명	언해	현대어
一滾	언구	역려	흔 소습 쓸혀	1차례 끓어오를 때까지 끓여서
滾湯	언구	곽관	끓는 물	끓는 물
滾熱	언구	변갈	글흔 물/니근물	끓은 물
沸	언태	자리	글혀	끓어오를 때까지
沸	언두	출두삼일	글흔	끓어오를 때까지
沸	언구	옹저	쓸혀	끓어오를 때까지
沸湯	언구	역려	끓는 물	끓는 물
沸湯	언두	수업삼일	끓는 물	끓는 물
白湯	언구	음양역	더운 물	뜨거운 물
熱湯	언구	음양역	더운 물	뜨거운 물
煎	언구	식궤	다리	달여
煎	언구	상기	달여	달여
煮	언구	오탄금철	다리	달여
煮	언구	오탄금철	솔마	살마
煮	언구	고독	살와	삶아
熬	언두	기창삼일	달혀	달여
熬之	언구	근단골절상	복가	볶아서

언해의 경우를 보면 滾, 沸, 湯, 煎, 煮, 熬가 모두 물이나 약재를 달이거나 끓이는 의미라는 점에서는 이

견이 없다. 다만 추출한 결과물들을 살펴보면 그 정도의 차이로 나누어 볼 수 있을 듯 하다. 滾, 沸는 ‘끓이다’ 혹은 ‘끓어오르다’로 언해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물이 필필 끓어 오르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고 湯은 ‘끓는’, ‘끓은’, ‘더운’으로 언해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물을 끓여 뜨겁게 되어 있는 탕 형태의 물이나 액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煎과 煮와 熬는 ‘달이다’의 뜻으로 많이 쓰이는 것으로 보아 단순히 끓어오르는 상태가 아닌 약재의 성분이 잘 우러나오도록 오래도록 달이는 경우에 쓰이는데 그 중 煮는 적당히 넣고 삶는 정도로 달이는 형태이고, 熬는 물을 거의 넣지 않고 달이는 형태로 볼 수 있겠다. 번역할 때 문맥에 따라 차이를 두어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沸는 ‘끓이다’로, 湯은 ‘탕’이나 ‘끓인’으로, 煎은 ‘달이다’로, 煮는 ‘삶는다’로, 熬는 ‘볶는다’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적당할 듯 하다.

2) 熬, 燒, 炒, 煨

熬와 함께 燒, 炒, 煨는 불을 이용하여 약재를 볶거나 태우는 경우에 자주 등장하는 조법 용어이다 燒는 ‘태우다’로 주로 번역되고, 炒는 ‘볶다’로 번역되며, 煨는 돌이나 광물 따위를 ‘달군다’는 뜻으로 주로 번역되었다.

원문	출처	편명	언해	현대어
熬之	언구	근단골절상	복가	볶아서
炒研	언구	근단골절상	복가	볶아서
燒存性	언두	해독면두방	검게 스라	검게 태워
燒存性	언태	혈봉	검게스라	검게 태워
燒灰	언구	시수	불에 살와	불에 태워
燒灰	언태	십산후	스라/검게 스라	태워/검게 태워
燒灰	언두	예방두창급방	스른	불사른
火煨	언구	금상창	불에 살와	불에 태워
火煨	언두	해두독	불에 검게 스라	불에 검게 태워

언해의 경우를 보면 熬와 炒는 약재를 적당히 볶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고, 燒와 煨는 약재를 불에 검게 태우는 정도인데, 燒는 약성이 남게 태우는 형태로 법제하는 경우이고, 煨은 불에 달구는 형태로 태우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므로 熬와 炒는 앞서 언급한대로 ‘볶는다’로 번역하고 燒는 ‘불에 검게 태우다’로 煨은 ‘불에 달군다’로 번역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4. 치법 용어의 번역 표준안

1) 撲, 封, 付, 傳, 刷, 罨, 貼

撲, 封, 付, 傳, 刷, 罨, 貼, 按는 한의학 용어 중에서 약재를 외용으로 붙이거나 바르거나 싸매는 경우에 쓰이는 치법 용어들이다. 撲은 『東醫寶鑑』에서 증상용어 등에 쓰일 때는 넘어지거나 다치는 경우에도 쓰이는데 치법용어로는 ‘톡톡 쳐서 바른다’, ‘두드린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封은 ‘봉하다’거나 ‘싸매다’, ‘붙이다’, ‘덮어두다’, ‘바르다’ 등의 다양한 경우에 쓰였고, 付도 ‘붙이다’, ‘개어 바르다’로 쓰였다. 刷는 ‘씻다’, ‘바르다’로 쓰였고, 罨은 ‘붙여 두다’, ‘바르다’로 쓰였다. 貼은 도량형에서는 ‘첩’이라는 단위로 많이 쓰였는데, 치법 용어에서는 ‘붙이다’, ‘발라서 붙이다’로 번역되었다. 按은 ‘비비다’, ‘주무르다’, ‘문지르다’로 번역되었다. 사례들을 보아도 한가지 용어가 ‘붙이다’와 ‘바르다’, ‘덮다’ 등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으며, 용어사이에도 큰 차이 없이 쓰이는 경우도 많다.

원문	출처	편명	언해	현대어
撲之	언두	반관	두드려바르라	두드려 바른다
封之	언구	제자상	쓰미면	싸매면
封之	언구	옹저	쓰미어 두라	싸매어 두다
傳之	언구	제수상	발고	바른다
傳之	언두	수업삼일	바르라	바른다
刷之	언두	양통	바르라	바른다
刷	언두	두후옹절	부터 스스면	물혀서 씻는다
付之	언구	근단골절상	부치되	붙이되
付之	언구	제수상	바르고	바르다
按付	언구	제충상	부벼어 부치고	비벼서 붙이고
罨	언구	근단골절상	부치면	붙이면
罨付	언구	제충상	쓰미라	싸매다
罨之	언구	금상창	쓰면/쓰미고	(상처를) 싸매면
貼	언구	옹저	부치고	붙이고
貼	언태	십산후	브티고	붙이고
貼	언두	두후예막	브티라	붙이고
貼護	언구	옹저	부쳐 두면	붙여 두면
按貼	언구	제충상	부벼어 부치고	비벼서 붙이고

언해의 사례를 살펴보면 撲은 약재 등을 가루낸 것을 찍어서 두드려 바르는 형태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가루를) 찍어 두드려 바른다’로 번역하는 것이 좋겠다. 封은 문맥에 따라 釋音式으로 번역하여 ‘봉하다’로

번역하거나, ‘짜매어 두다’로 하는 것이 적당할 듯하다. 傳와 刷는 모두 ‘바르다’로 언해되어 있으나 약간의 차이가 있다. 傳는 일반적으로 약을 상처나 헌 곳에 바르는 것을 의미하고, 刷는 닭의 깃이나 종이에 묻혀서 씻는 뜻이 바르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付, 漚, 貼도 모두 ‘붙이다’라는 공통된 뜻을 가지고 있으나 언해의 예를 살펴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付는 ‘바르다’의 뜻으로도 언해되어 있으나 문맥상 약재 등을 씹거나 적셔서 ‘붙이듯이 바르는’ 형태를 의미하고, 漚은 단순히 붙여두는 형태가 아니라 ‘붙여서 짜매두는’ 형태를 의미한다.

2) 噴, 糝, 洗, 沃, 浸, 蘸

噴, 糝, 洗, 沃, 浸, 蘸은 한의학 용어 중 물이나 약재 달인 물로 씻거나, 담가두거나, 뿌리거나 하는 형태를 나타내는 치법 용어들이다. 『동의보감』에서 噴가 치법 용어로 쓰인 경우 ‘뿜어주다’, ‘뿌려주다’로 번역되었고, 糝은 ‘뿌리다’로 비슷하게 번역되어 있다. 洗와 沃의 경우도 그러한데 洗는 ‘씻다’, ‘씻어내다’, ‘헹구다’로, 沃는 ‘씻다’, ‘붓다’, ‘뿌리다’로 번역되어 있다. 浸과 蘸도 모두 ‘담그다’라는 공통된 번역어를 지니고 있고, 그밖에 蘸은 ‘묻히다’, ‘적시다’의 뜻으로도 쓰인 용례를 볼 수 있다.

원문	출처	편명	언해	현대어
噴	언두	출두삼일	뿌르되	뿜는다
噴	언두	혹함	뿌르면	뿜으면
噴	언두	양법	뿌르라	뿜어라
糝	언태	부초생아구급	뿌히 버르라	뿌려 발라라
糝	언두	양통	뿌호라	뿌려라
糝之	언구	금상창	뿌히 버르면	뿌려서 바르면
糝之	언두	반란	뿌히 버르미	뿌려서 바르면
洗之	언구	탕화상	씻기고	씻기고
洗之	언두	해독면두방	씻기면	씻기고
沃之	언두	기창삼일	적서 씻기라	적서서 씻기다
沃	언태	혈훈	끼터	끼치다(뿌리다)
沃	언구	역려	불워	불려서
浸	언구	음식독	담가	담가
浸	언태	구사	담그니	담가
浸	언두	두후예막	담가	담가
蘸	언두	해독면두방	디거	찍어
蘸	언태	부초생소아구급	디거	찍어

언해의서의 사례를 살펴보면 噴는 ‘뿌르라’로, 糝는 ‘뿌리다’나 ‘뿌려서 바르다’로 언해되어 있어 그 치법의 형태를 구분하기가 용이하다. 洗는 문맥상 흐르는 물에 씻는 형태이므로 ‘씻다’로 번역하는 것이 좋겠고, 沃는 담갔다 씻거나 담가서 불리는 형태이므로 ‘적서서 씻다’나 ‘붙리다’로 번역하는 것이 적당하다. 언해의서에서 浸과 蘸은 모두 ‘담그다’는 뜻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문맥상 浸은 주로 오래 담가두는 경우에 쓰였으며, 蘸은 손가락에 감아 잠깐 담갔다 꺼내거나, 기름에 찍는 형태인 경우에 쓰였으므로 번역에 참고할 만하다.

5. 기타 한의학 용어의 번역 표준안

1) 漿

漿은 사실상 한 분류의 용어로 넣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 물이나 약재의 옷물로 쓰이는 경우에는 약재용어로 분류할 수 있고, 産科에서 등장하는 경우에는 체액용어로 분류되며, 두창과 관련하여 쓰인 경우에는 증상용어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유의할만한 점은 각각의 경우에 전혀 다른 의미로 번역이 된다는 것인데, 여러 경우에서 漿은 물이나 액체형태의 모든 경우에 쓰인다고 보면 된다.

원문	출처	분류	편명	언해	현대어
水漿	언두	약재	인후통	물머금/물	물
水漿	언구	약재	실흡탈함	죽물	죽물
漿水	언두	약재	혹함	운 물	옷물
漿水	언두	약재	혹함	조죽 운 물	죽물
漿水	언두	약재	두후예막	조쌀죽 운 물	조쌀죽 옷물
漿汁	언구	약재	탕화상	장	장
漿汁	언구	약재	제약독	장물	장물
地漿	언구	약재	제약독	누른 흙물	누린 흙물
地漿	언구	약재	제약독	덜흙물	누린 흙물
地漿	언구	약재	제과독	진흙물	진흙물
漿	언태	체액	보산	딘물	양수
水漿	언태	체액	보산	머리와딘물	양수
漿血	언태	체액	심산후	물과 피	양수와 피
胞漿	언태	체액	심산후	머리와 딴물	양수
漿	언두	증상	기창삼일	물	진물이
漿	언두	증상	관농삼일	농	농
毒漿	언두	증상	관농삼일	독혼 물	독한 액
漿老	언두	증상	수엽삼일	물이 쇠고	물이 더 안 나오고

원문	출처	분류	편명	언해	현대어
漿影	언두	증상	변형색선약	물비치 집고/물이 도는 그림자	장액 그림자
漿影	언두	증상	육법	물 도는 영	물이 도는 징조
回漿	언두	증상	관농삼일	물이 돌고	농이 돌고

언해를 살펴보면 漿이 약재로 쓰이는 경우는 번역을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水漿과 漿水의 경우는 혼용되어 쓰이며 처방의 형태에 따라 ‘물’이나 ‘웃물’, 혹은 ‘즙쌀죽의 웃물’을 적절히 나누어 쓰는 것이 좋을 듯하다. 漿汁은 주로 어떤 약재에서 즙을 짜내어 나온 액이라는 의미로 주로 쓰이며 현대적 의미를 고려하여 ‘진액’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겠고, 地漿은 ‘진흙물’이 적당할 듯하다. 漿이 産科에서 등장할 때는 언해로 ‘머리와딘물’이라고 주로 번역되어 있으며 이 용어는 ‘양수’의 옛말이다. 단순히 ‘물’이라고 언해가 되어있는 경우도 문맥상 ‘양수’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반면 『언두』에서는 ‘물’, ‘농’, ‘독흔 물’, ‘물이 도는 징조’ 등 다양하게 언해되어 있다. 그러나 의미를 살펴보면 창진에서 베어 나오는 농이나 고름, 수포에 들어있는 물이나 딱지에 베어있는 진물 등의 의미로 쓰였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농’이나 ‘진물’로 번역하는 것이 적당 하겠다.

IV. 결론

본고에서는 언해의서 중 『診解痘瘡集要』·『診解救急方』·『診解胎産集要』에 등장하는 용어들을 한의학 용어로 볼 수 있는 최소의미단위로 나누어 각각의 원문과 언해를 발췌하고, 중복되는 용어들이 어떻게 언해로 풀어서 적용되어 있는지를 비교해 보았다. 그 중 번역이 애매하거나 여러 가지로 번역이 도출되는 경우들을 모아서 병증·신체부위·조법·치법으로 분류하여 한의학 번역 표준안에 대한 단초를 마련해 보고자 하였다.

1. 병증용어의 번역 표준안 :

1) 연구결과 厥證은 ‘인사불성이 되는 증세’로 번역어를 대입할 수 있으며, 氣厥은 ‘기궤(기운이 치우쳐 인사불성이 되는 병)’으로, 痰厥은 ‘담궤(담이 막혀 인

사불성이 되는 병)’으로, 尸厥은 ‘시궤(기절하여 시체 처럼 인사불성이 되는 병)’으로, 食厥은 ‘식궤(음식으로 막혀 인사불성이 된 병)’으로 번역어를 정립하는 것이 적당하다.

2) 피부질환 용어 중 癩, 疫은 각각 ‘유행성 온역’과 ‘유행성 열병’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당하다. 痘와 결합된 용어는 ‘힝역’ 즉, ‘마마’로 번역하고, 瘡은 결합되는 용어에 따라 다양한 번역어를 지니는데 종합적으로 ‘마마’와 ‘혈다’의 뜻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마마로 쓰이는 경우에는 각각 앞 뒤에 疔, 疹, 痂, 瘍, 癩 등과 결합되면서 疔, 疹, 痂, 瘍, 癩로 인해 생기는 부스럼으로서의 뜻을 지니고, ‘혈다’의 뜻으로 해석되는 경우는 썩어 문드러지듯 살이 혈이 없어지는 무서운 증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언해의 경우를 살펴보면 疹은 ‘부스럼’이나 ‘홍역’의 두가지로 번역어를 설정할 수 있으며 疹이 홍역으로 쓰인 경우는 痘와 함께 쓰인 경우이므로 배제하기로 하겠다. 재미있는 것은 『언두』의 「痘癩疹形色」이라는 편명인데 痘, 癩, 疹은 각각 마마와 독역과 홍역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당하다.

3) 언해의 용례를 살펴보면 煩은 ‘답답하다’ 또는 ‘번열하다’로 표준안을 삼을 수 있고, 煩渴은 ‘가슴이 타듯 답답하고 목이 마른 증상’으로, 煩悶은 ‘답답하다’로, 煩燥(躁)는 ‘가슴이 타듯 답답하다’로 번역할 수 있다.

4) 客忤는 ‘헛것을 보고 기절한 증상’으로, 鬼魘은 ‘자다가 가위 놀려 기절한 증상’으로, 疝痛은 ‘아랫배가 아프고 대소변을 못하는 증상’으로, 奔豚은 ‘산증으로 인한 통증이 아랫배에서 가슴으로 치받는 증상’으로, 邪祟는 ‘귀신에 들린 듯 미친 경우’로 번역 표준안을 삼을 수 있다.

2. 신체 용어의 번역 표준안 :

한의학에서 足脛 ‘다리’, ‘정강이’, ‘발과 정강이’로 번역이 되는데, 주로 經이 足과 함께 쓰이는 경우에는 ‘정강이’로 풀이해왔던 듯하다. 그러나 足脛은 『언두』에 두 번 등장하는데, 모두 ‘발목’으로 언해를 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牙의 경우는 보통 ‘어금니’나 ‘치아’로 번역을 하곤 하는데, 『언구』, 『언두』, 『언태』에서 모두 ‘잇몸’으로 언해한 경우를 찾아볼 수 있어 흥미롭다. ‘음낭’으로 번역할 수 있는 용어로는 腎, 外腎, 陰

牽, 陰囊가 있고 그 중 腎은 쓰임에 따라 '신장'과 '음낭'으로 번역할 수 있다.

3. 조법 용어의 번역 표준안

1) 滾, 沸는 '끓이다' 혹은 '끓어오르다'로 언해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물이 펄펄 끓어 오르는 상태를 나타낸다. 번역할 때 문맥에 따라 차이를 두어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沸는 '끓이다'로, 湯은 '탕'이나 '끓인'으로, 煎은 '달이다'로, 煮는 '삶는다'로, 熬는 '볶는다'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적당할 듯 하다.

2) 熬와 炒는 앞서 언급한대로 '볶는다'로 번역하고 燒는 '불에 김게 태우다'로 煨은 '불에 달군다'로 번역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4. 치법 용어의 번역 표준안

1) 언해의 사례를 살펴보면 撲은 약재 등을 가루낸 것을 찍어서 두드려 바르는 형태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가루를) 찍어 두드려 바른다'로 번역하는 것이 좋겠다. 封은 문맥에 따라 釋音式으로 번역하여 '봉하다'로 번역하거나, '싸매어 두다'로 하는 것이 적당할 듯 하다. 傅와 刷는 모두 '바르다'로 번역어를 삼되, 傅는 일반적으로 약을 상처나 헌 곳에 바르는 것을 의미하고, 刷는 닦의 것이나 종이에 묻혀서 씻는 뜻이 바르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付, 罨, 貼도 모두 '붙이다'라는 공통된 뜻을 가지고 있으나 付는 문맥상 약재 등을 씹거나 적셔서 '붙이듯이 바르다'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당하고, 罨은 단순히 붙여두는 형태가 아니라 '붙여서 싸맨다'로 표준을 삼는 것이 좋겠다.

2) 噴는 '뿌르다'로, 糝는 '뿌리다'나 '뿌려서 바르다'로 언해되어 있어 그 치법의 형태를 구분하기가 용이하다. 洗는 '씻다'로 沃는 '적셔서 씻다'나 '불리다'로 번역하는 것이 적당하다. 浸과 蘸은 모두 '담그다'는 뜻으로 번역되어있는데, 문맥상 浸은 '담가두다'로 蘸은 '적시다'로 표준을 삼는 것이 적당하다.

5. 기타 한의학 용어의 번역 표준안 :

여러 경우에서 漿은 물이나 액체형태의 모든 경우에 쓰인다. 水漿과 漿水의 경우는 혼용되어 쓰이며 처방의 형태에 따라 '물'이나 '웃물', 혹은 '좁쌀죽의 웃물'을 적절히 나누어 쓰는 것이 좋을 듯하다. 漿汁은 '진

액'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겠고, 地漿은 '진흙물'이 적당하다. 漿이 産科에서 등장할 때는 '양수'로, 두창에서 사용될 때는 '농'이나 '진물'을 표준안으로 삼는 것이 적당하다.

본고에서 언해의서가 한자에 익숙하지 않은 의관이나 백성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의서를 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병증, 증상 등 설명에 대해서도 보다 자세하고, 혼동하기 쉬운 대상을 언해로 쉽게 풀어서 간행되었다는 점에 의의를 두어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사실상 본고에서 연구의 기초 자료로 삼은 『診解痘瘡集要』·『診解救急方』·『診解胎産集要』는 각각 痘瘡, 救急, 産科라는 특정 상황에 맞추어 간행된 저작물이기 때문에 『東醫寶鑑』이나 그 외 한의학에서 요구하는 고의서들의 번역에 쓰이는 방대한 양의 한의학용어를 다 수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다만 허준이 참여하여 언해한 이 언해의서들을 통해 조금이나마 번역 표준안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 보려는 노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국내에는 이 밖에도 『簡易辟癘方』, 『診解職藥症治方』, 『增修無冤錄診解』, 『痘瘡經驗方』, 『辟瘟新方』, 『辟瘟新方診解』, 『分門瘟疫易解方』, 『救急簡易方診解』 등 한문과 한글이 병기된 언해의서들이 많이 존재하고, 『鍼灸經驗方』, 『四醫經驗方』, 『良方金丹』, 『舟村新方』, 『廣濟秘笈』, 『林園經濟志附仁濟志』, 『濟衆新編』 등 단어의 한글표기가 되어 있는 의서들도 존재한다. 이러한 서적들을 단순히 국어학이나 의사학적 입장에서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의사학적 번역에 초점을 맞추어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또한 향후 현대어로 번역된 한의학서들에서도 국내에 전문 역자들이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는지에도 초점을 맞추어 세계의료시장에 한의학의 경쟁력 신장을 꾀하려는 지금의 요구에 발맞춰야 할 것이다. 이는 또한 한의학을 위한 방대하고도 신뢰성있는 DB를 구축하는데 검색의 용이성과 정보의 연산이 가능케 하는 기초작업으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2012년도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문헌

창의적 해석을 통한 미래지식보감 구축(과제번호 : K12110)'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참고문헌

〈단행본〉

- 안상우 외 역, 『언해두창집요』, 한국한의학연구원, 2011.
 안상우 외 역, 『언해구급방』, 한국한의학연구원, 2011.
 안상우 외 역, 『언해태산집요』, 한국한의학연구원, 2011.
 홍운표 외 간, 『17세기국어사전』, 태학사, 1995.
 남광우, 『교학고위사전』, (주)교학사, 1997.
 한글학회 편, 『우리말큰사전』V.4(고어편), 어문각, 1992.
 신정철, 『국어자석연구』, 태학사, 1993.
 윤석희, 김형준 역, 『동의보감』, 동의보감출판사, 2006.
 노석선, 『原色 皮膚科學』, (주)아이비씨기획, 2006.

〈학위논문〉

- 강유리, 「『救急簡易方諺解』와 『東醫寶鑑』湯液篇의 약재명에 대한 비교」, 공주대 대학원, 2004.
 강진주, 「15·16세기 의약서 언해의 표기와 음운 현상 연구」, 전북대 대학원, 2012.
 김민수, 「『언해두창집요』의 의사학적 고찰」, 경희대 대학원, 2003.
 김중권, 「許浚의 『諺解救急方』, 『諺解痘瘡集要』, 『諺解胎產集要』에 관한 書誌學的 研究」, 중앙대 대학원, 1994.
 김현진, 「『救急方諺解』의 표기법과 음운현상 연구」, 공주대 대학원, 2010.
 원순옥, 「『救急方諺解』의 語彙 研究」, 대구효성가톨릭대 대학원, 1996.
 육신영, 「『언해태산집요』에 대한 번역 연구」, 동국대 대학원, 2008.
 윤혜정, 「『諺解救急方』의 국어학적 연구」, 서울 숙명여대, 1996.
 정순덕, 「『구급방』의 의사학적 연구」, 경희대대학원, 2009.
 정은아, 「許浚의 『諺解胎產集要』에 對한 研究」, 경희대대학원, 2003.
 채인숙, 「17세기 醫書諺解의 국어학적 고찰」, 한양대 대학원, 1986.

〈학술지 논문〉

- 강순애, 「새로 발견된 내의원자본 『언해두창집요』의 연구」, 『서지학회』, 2000.
 김남경, 「『구급 간이방』의 국어학적 연구」, 『한국어문연구』, 2000;70.
 김남경, 「『諺解救急方』의 국어학적 고찰」, 『국어사연구』, 2004;4.
 김남경, 「구급방류 구문연구-증세구문을 중심으로」, 『민족 문화논총』, 2003;33.
 김남경, 「구급방류 의서의 구문 연구-처방과 관련된 구문을 중심으로」, 『語文研究』, 2007;53.
 김남경, 「구급방류 의서의 언해 비교-동일 원문을 대상으로」, 『언어과학연구』, 2005;32.
 김영신, 「『救急方諺解』 상하의 어휘 고찰-붙임(어휘 색인)」, 『수련어문학회』, 1976;4.
 김유범, 「『언해태산집요』의 국어학적 특징에 대하여」, 『국어사연구』, 2009;9.
 김중권, 「『諺解救急方』의 서지학적 연구」, 『서지학연구』, 1994;10.
 김중권, 「『諺解胎產集要』의 서지적 연구」, 『서지학연구』, 1993;9.
 김중권, 「『諺解痘瘡集要』 서지학적 연구」, 『현대사회과학연구』, 1994;5.
 김희경, 「한자어의 번역 어휘 연구」, 『한국어문학회』, 2011;112.
 박영섭, 「『救急方諺解』 上·下에 나타난 한자 對譯語 및 어휘 연구(2)」, 『강남대논문집』, 2002;39.
 박영섭, 「『救急方諺解』 上·下에 나타난 한자 對譯語 및 어휘 연구(1)」, 『강남대논문집』, 2001;37.
 박영섭, 「『胎產集要諺解』에 나타난 한자 對譯어휘 研究(1)」, 『인문과학논집』, 2004;13.
 박영섭, 「『胎產集要諺解』에 나타난 한자 對譯어휘 研究(2)」, 『인문과학논집』, 2005;14.
 석주연, 「조선 시대 의학서 언해류에 나타난 분류사의 종류와 기능」, 『우리말 글』, 2011;51.
 원순옥, 「『구급방(언해)』의 회귀 어휘 연구」, 『한국말글학회』, 2003;20.
 이경옥, 「救急簡易方諺解의 表記法 研究」, 『단국어학』, 1991;1.
 이미향, 「신자료 언해본 『침구경험방』의 국어학적 고찰」, 『국결학회』, 2003.
 이태욱, 「『언해태산집요』에 나타난 17세기 국어 부정법 고찰」, 『언어과학연구』, 2003;24.
 이현숙, 「『언해 벽은신방』과 『언해 남약증치방』의 역사적

- 의의-이화여대 소장본을 중심으로. 『언해과학연구』, 2003;24.
- 장영길. 『『諺解臘藥症治方』의 희귀어휘 연구』. 『반교어문 연구』, 2006;21.
- 장영길. 『동국대 경주도서관본 諺解痘瘡集要에 대하여』. 『불교어문논집』, 2004;9.
- 정순덕. 『許浚의 『諺解救急方』에 관한 研究』. 『한국의사학회』, 2003;16(2).
- 최미현. 『『救急簡易方』에 반영된 한자음의 변화 양상』. 『우리말연구』, 2008;22.
- 최미현. 『『諺解胎產集要』와 『東醫寶鑑』의 원문 대조 연구(1)』. 『우리말연구』, 2009;25.
- 최미현. 『『언해태산집요』에 반영된 한자음의 변화 양상에 대하여』. 『새얼어문논집』, 2007;19.
- 최미현. 『언해 의서류의 역주 방법 연구』. 『국어사연구』, 2011;12.
- 최중호. 『『언해태산집요』의 약재명 한자음 연구』. 『한말연구』, 2008;22.
- 최충기. 『구급방류 의서의 치료구문 연구』. 『민족문화논총』, 2009;40.